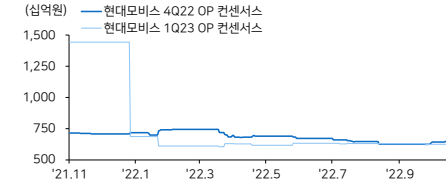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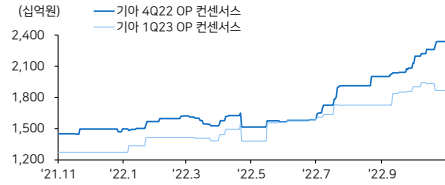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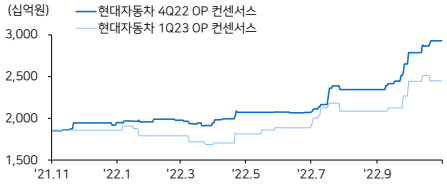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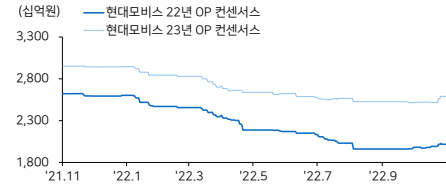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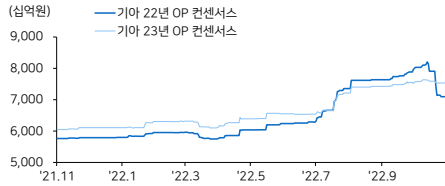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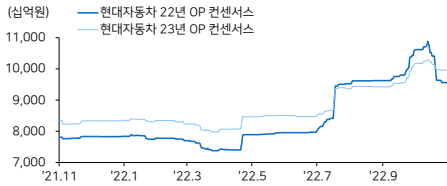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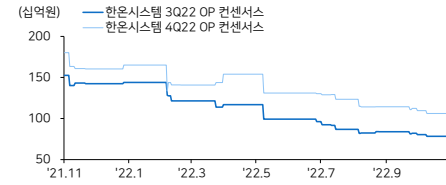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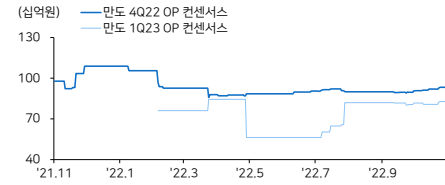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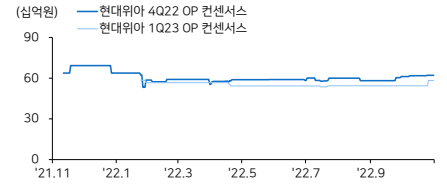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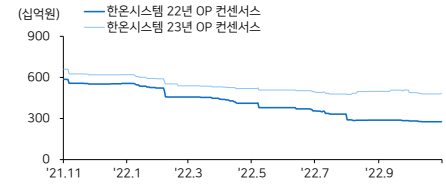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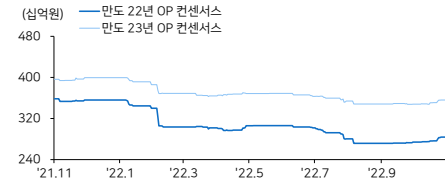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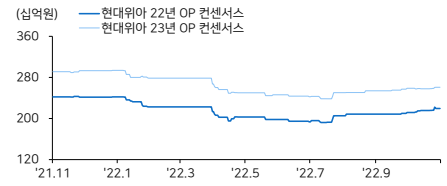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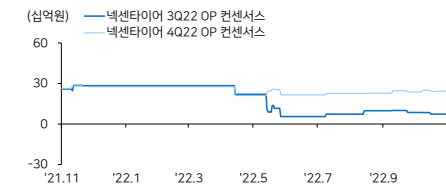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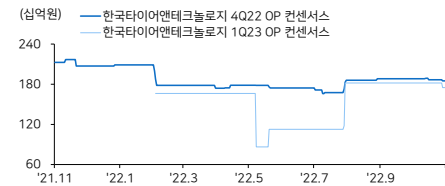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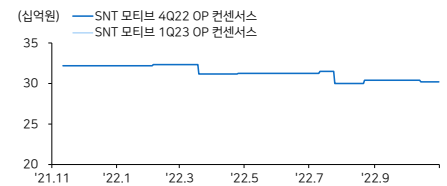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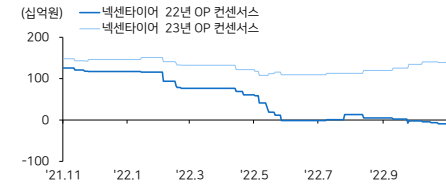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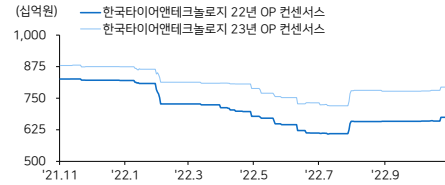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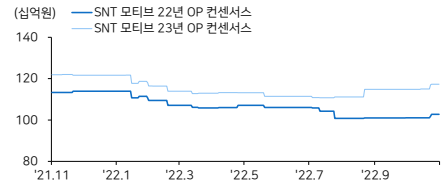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삼성SDI, GM·볼보와 합작 추진... '반도체 다음은 배터리' 이재용 체재 뉴삼성 윤곽 (동아일보)

삼성SDI가 미국에서 GM과 볼보 2곳과 각각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총 8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 중. 두 곳 모두 연간 50GWh 생산능력에 40억 달러 규모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hYR68>

중에서 전기차 불티나게 팔리니... '하얀 석유' 톤당 1.1억 돌파 (머니투데이)

지난 11일 배터리용 탄산리튬 현물가격이 t당 59만 위안(약 1억1100만원)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국 업체들이 전방위적인 리튬 자원 확보에 나선 가운데 내년엔 리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등장.
<https://bit.ly/3TABrll>

Can GM electric vehicles turn a profit by 2025? Mary Barra is betting on it (electrek)

GMO이 EV 생산규모를 지속 확장 하지만 생산라인에서는 소량만 생산되어 EV사업부가 2025년 이전까지 지속해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 CEO Mary Barra는 2025년 GM의 EV사업부가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최근 언급.
<https://bit.ly/3TABi88>

Tesla Denies Malfunction to Blame for Deadly Crash Caught on Video in China (Bloomberg)

Tesla는 중국에서 발생한 Model Y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사고는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 차량 데이터는 브레이크 패달이 밟힌 기록이 없었으며 비디오에서도 브레이크음이 꺼져 있음이 확인.
<https://bloom.bg/3hL02LO>

현대차, 인도네시아 새 수도 누산타라 하늘에 드론택시·무인항공기 띄운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는 14일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B20 서밋'에서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함께 AAM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 정익 회장은 수도 이전 추진 중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협력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TCmHsP>

전기차 배터리 카르텔 생기자... 호주 리튬·인니 니켈 동맹 추진 (연합뉴스)

니켈과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이들 자원을 매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 카르텔 출범 여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됨.
<https://bit.ly/3EwmB1w>

Electric vehicle makers burning cash, slammed by sky-high costs (Reuters)

많은 EV 스타트업이 3Q22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으며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높은 비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 Lordstown은 현금 마련을 위해 공장을 매각했으며, Canoo의 현금보유량은 680만 달러에 불과.
<https://reut.ly/3hGCbqj>

Growing EV demand helps Volkswagen reach half a million ID deliveries one year early (electrek)

폭스바겐은 EV의 전례적 수요 증가로 인해 누적 BEV 판매 50만대 목표를 1년 일찍 달성함. 향후 2026년까지 10개의 새로운 EV 모델을 출시할 예정. 또한 2033년 유럽에서는 BEV만 판매, 미국/중국에서는 BEV 판매비율 50%가 목표.
<https://bit.ly/3TAHaj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